



다양성 안에서  
일치를 추구하는  
DAIL COMMUNITY

# 다일공동체

2014.02



나눔과 섬김의 오케스트라  
외교부가 최고야!

DAIL

DAIL

# “토종 NGO, 다일을 키워 주세요!”



찬바람에 휘감기는 마른 가지들이 새 순을 준비하고, 꽃  
잎은커녕 잎사귀 하나 보이지 않는 꽃나무 뿌리들이 곱  
디고운 꽃물을 배는 아름다운 인고의 시절 2월입니다.  
한 달 동안 후원회원님 모두 건강히 잘 지내셨는지요?

저는 지난 1월 28일부터 이 글을 쓰는 지금까지 아프리  
카 탄자니아다일공동체를 방문 중입니다. 박상원 홍보대  
사님과 열일곱 사람의 후원회원님들을 모시고 이곳 탄자  
니아 다일비전센터 개원식과 봉사활동을 위해 멀고도 먼  
길을 날아온 것입니다.

한 낮의 햇살 아래 잠시라도 서 있노라면 피부가 온통  
익어 버릴 것만 같은 적도의 땅 탄자니아, 쿤두치 마을  
의 굶주린 어린이들의 배고픔을 조금이라도 달래주기  
위해 달려 온 후원회원님들과, 여기 오시진 않았지만 한  
국과 여러 나라에서 기도해 주시는 후원회원님들의 사  
랑으로 이곳의 많은 어린이들과 주민들이 더없이 행복  
해합니다. 이곳 주민들의 기쁨과 감사를 이 지면을 통해  
전해 드리고만 싶습니다.

존경하는 후원회원 여러분!  
올해로 26살 청년기를 맞은 다일공동체는 청년다운 건강  
함과 씩씩함으로 올 한 해 더욱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한  
국의 사회복지 성장 발전 역사를 돌아보면, 대부분의 비  
정부조직(NGO), 비영리단체(NPO)들은 6.25 직후 외국인  
이 외국에서 시작해서 한국에 들어왔습니다. 한국의 경  
제발전과 사회복지 의식 발전과 함께 크게 발전하여 세  
계로 확장되어가고 있습니다.

저희 다일공동체는 한국 사람인 제가 한국에서 시작하여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가난하고 굶주리는 사람들의 고통  
을 덜어주기 위해 도움의 손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들이 어찌 저와 다일공동체 가족들만의 힘으로 가능했  
겠습니까? 한국은 물론 중국, 베트남, 미국, 캄보디아, 네  
팔, 필리핀, 탄자니아 7개국에 9개 분원을 만들고 금년 7  
월이나 8월에는 우간다 다일공동체 개원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해외 오지 10개 분원에서 수많은 소외된 이웃들  
을 먹이고 입히고 치유하고 교육시키 시는 후원회원님들  
이 바로, 여러분들이십니다. 다일 후원회원님들은 한국에  
서 시작된 한국의 토종 구제금출단체[NGO 다일, NPO 다  
일]를 26년 째 키워오고 계십니다.

후원회원 여러분, 고맙고 감사합니다!  
이제 세계 국가 경제 순위 8위에 이른 대한민국의 국격에  
걸맞은 한국 NGO[NPO]인 다일공동체가 2014년 더욱 열심  
히 일할 수 있도록 힘을 보내주십시오. 이제는 토종 NGO  
를 더욱 힘 있게 키워갈 때가 되었습니다.

추운 겨울엔 봄을 기다리는 기다림의 아름다움과 행복이  
있습니다. 아직도 이 지구상에 기아와 질병의 공포 속에  
서 죽어가는 생명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들이 기아와  
질병이 없는 행복한 봄을 맞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땀시다. 후원회원님과 가정과 하시는 일 위에 하나님의  
큰 축복이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2014년 2월에

작은형제 목사 올림



# CONTENTS

## 2014.02

- 02 나눔과 섬김의 교향곡
- 06 추위를 이기는 따뜻한 나눔이 있어 행복해요
- 12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 16 더 이상 울지 않아요
- 20 일체가 은혜요 감사뿐입니다
- 23 영혼을 위로해 주는 시
- 24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밥퍼는000이다
- 26 다일뉴스
- 30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들께 감사드립니다
- 32 후원안내

하나님을 기쁘시게,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후원 문의 및 신청 02-2212-8004 [www.dail.org](http://www.dail.org)

발행인 · 최일도   편집장 · 김연수   발행처 ·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발행일 · 2014년 2월  
 주소 · 서울시 동대문구 시립대로 57   편집위원 · 김도한, 목정수, 선한주, 이가영, 최가람  
 번역 · 이예형, 박예진   감수 · Byron Chun   사진 · 김도한, 목정수   디자인 · 제이앤제이컴퍼니  
 전화 · 02-2212-8004, 2213-8004   팩스 · 02-2243-8005



밥퍼 앞마당에 펼쳐놓은 간이천막 사이로 고소한 냄새가 솔솔 솟아오른다. 천막 안에서 두부부침을 하고 있는 젊은 연수생들의 손놀림이 처음에는 어색 하더니 이내 잔치집의 아낙네들 손길 마냥 부지런히 두부를 부쳐낸다.

가끔 부서져 모양이 나지 않은 것들은 서로 서로 먹여 주며 큰 소리로 웃는데 이 모습 또한 기쁜 잔치집 분위기 내는 것 같다. 정갈하게 썰어 부쳐진 두부를 양념으로 옷을 입히고 나니 참 먹음직스럽고 보기에 도 좋다.

시끌벅적 한 것은 두부를 부치는 천막 안 뿐만이 아니다. 날이 좋기는 하지만 1월의 겨울에 김치 담그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나 오늘 외교부 봉사자들의 열기는 추위와는 상관이 없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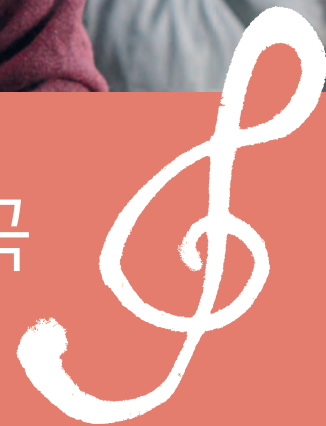
A roasting aroma rises in between tents set up on the front yard of Bapfor. Young trainees of the MOFA were not very good cooks at first, but soon they became very skilled at flipping tofu pancakes.

They laughed while feeding each other tofu crumbles and it made the atmosphere more like a feast. The nicely cut and presented tofu pancakes with delicious sauce looked so inviting and appetizing.

The tofu tents were not the only tents that were filled with the laughter. Although the weather was good, it was not an easy task to make Kimchi in January, in the middle of the winter. However, the MOFA volunteers today were full of passion regardless of the cold weather.



# 나눔과 섬김의 교향곡 외교부 이야기 II



## Harmony of Sharing and Serving Ministry of Foreign Affairs story II

붉게 상기 된 얼굴로 이내 칼로 배추를 알맞은 크기로 잘라 내고 있고 소금으로 저리고 양념으로 버무리는 작업들이 모두 거침이 없다. 활기찬 모습에 덩달아 힘이 솟는다. 놀라운 것은 이들 중에는 오늘 태어나서 처음으로 김장을 해 본다는 봉사자도 있다는 것이다. 전혀 처음으로는 보이지 않았다.

밥퍼나눔 운동본부의 최일도 목사와 나란히 밥을 푸던 윤병세 장관님은 노숙인과 어르신들을 조금 더 가까이 섬기는 자리로 나아가기 원한다며, 식판을 들고 준비된 진지를 한분한분 눈을 맞추며 나누고 있다.

잘 짜여진 오케스트라의 구성과 하모니가 감동을 주듯이 외교부의 하나하나의 봉사의 움직임 모두가 하나로 어우러져 나눔과 섬김의 멋진 합주를 이루어 내고 있다.

열정적이고 활기찬 외교부 연수생들의 모습 그리고 겸손하고 부드럽게 그러면서도 결코 과장 되지 않은 장관님의 섬김의 모습. 이 시간 외교부의 섬김을 한마디로 말한다면 나눔과 섬김의 교향곡이다.

멋진 교향곡을 들려 준 외교부에게 엄지손가락을 올리며 답한다.

**나눔과 섬김의 외교부가 최고야!!!**

With blushed cheeks, they cut cabbages in just the right size and marinated them with salt and sauce. Everyone was so into the work. Their vibrant atmosphere made others cheerful as well. Surprisingly, some of them had never done this kind of work before. Yet, it did not seem like it was their first time making Kimchi. They were so good at the work.

Minister Yun Byung-se, who had been scooping rice with the rev. Choi, Il-do of Bapfor sharing movement center, he himself handed out prepared food trays to elderly people one by one wanting to be closer to the homeless people and those who are elderly.

Like a well organized orchestra creates a heart warming harmony, each movement of the MOFA volunteers made a fabulous harmony of sharing and serving in one sound.

Passionate and energetic MOFA trainees, soft, humble, and honest serving by the minister - if I were to sum up the MOFA ministry in one phrase, that would be the 'harmony of sharing and serving.' Two thumbs up to the MOFA who made this gorgeous harmony, I say this:

**MOFA is the best with their hearty sharing and serving!**



# 밥퍼밴드는 사랑입니다

밴드 1개 5,000원으로  
빈민촌 아이들 20명을  
배불리 먹일수 있습니다  
빈민촌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사랑을 나누어 주세요!!



문의  
서울다일교회 02.2243.8004 / 임정순 전도사 010.8862.0834  
밥퍼나눔운동본부 02.2214.0365 / 부분부장 이지현 목사 010.4205.5004



추위를 이기는 따뜻한 나눔이 있어 행복해요

**I'm happy to have a warm sharing to beat the cold**

미주다일공동체 박종원 원장 • Chong Won Park, director of USA Dail Community

얼마 전 미국에는 105년 만에 한파가 닥쳐 나이가가라 폭포가 얼어붙는 영화에서나 볼 수 있는 일이 실제로 일어났습니다. '바람의 도시'로 유명한 시카고도 실제 기온이 섭씨 영하 25도, 체감기온은 영하 45도까지 내려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표적인 도시 시카고를 얼어붙게 만든 날씨도 이숙의 집사님의 제3세계 가난한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마음에는 그만 항복하고 말았습니다. 너무나 추운 날씨가 염려되어 집사님께 안부전화를 드렸더니 집사님은 오히려 "저희 집도 너무 추워서 밖으로 나가는 문이 얼어 열리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제3세계 아이들에게 더 많은 사랑을 나눠주기 위해 가게로 나왔습니다. 이 추위에도 가게를 찾아주시고 후원해주시는 손님들이 계셔서 오히려 제 마음이 아주 행복합니다. 하하하!!"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 집사님이 다일공동체를 만난 것은 하시던 비즈니스가 많이 힘들었던 2010년 3월이었습니다. 애틀랜타에서 열렸던 미주 10기 다일영성수련회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금 깨닫고 새 힘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제3세계 빈민촌의 다일공동체 사역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되었고 이후 하시던 비즈니스가 갈수록 잘 되었습니다.

A few days ago, January was recorded as the coldest month in U.S. history. It broke a 105 year old record. It was so cold that even the Niagara Falls froze. In the famous windy city of Chicago, the temperature fell to -25C. With the wind chill factor, it felt like -45C.

However, even the cold weather that made Chicago freeze surrendered to Sookui Lee's heart for third world country children. I called Mrs. Lee to find out if she is alright in this severe weather. Mrs. Lee told me it was so cold that she could not open her front door to go outside. But to give one child love, she was encouraged to go to her place of business. Even in this cold weather, people came and donated to our donation box. This made me very happy. Ha! Ha! Ha!

Mrs. Lee's business experienced hard times in March 2010. That's when she came to Dail Community. Through Atlanta's 10th Dail Spiritual Retreat, she once more recognized God's love and was encouraged. As she was more and more involved in helping Dail Community's third world children, her business started to pick up.



다일공동체가 사역하는 모든 해외 사역지를 물심양면으로 후원하고 섬기시던 이 집사님은 남편과 상의하여 중국다일공동체에서 자라나는 아이들 가운데 고등학생 마웨와 원삼이를 양아들로 삼게 되었습니다. 마침 자식이 없던 두 부부는 두 아이를 양아들로 삼아 매월 두 아이의 양육비와 더불어 중국다일공동체 다른 아이들을 위해 정기적으로 후원금을 보내고 있습니다. 어찌나 지극 정성으로 사랑하고 돌보는지 보는 이 들마다 깊은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두 부부는 두 양아들에게 제3세계 다일의 사역현장을 보여주고 장차 책임 있는 세계시민으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오는 1월에 있을 아프리카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비전트립에도 함께 참여합니다.

이 집사님은 다일을 만난 후로는 \$1을 보며 '하루 \$1이면, 한 생명을 살릴 수 있는데...'라는 마음으로 사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집사님은 집에 5갤런 물통으로 된 저금통을 준비하여 매일 퇴근 후 호주머니와 지갑에 있는 동전과 지폐를 모으고, 가게에도 다일의 후원모금함을 놓아 손님들에게 후원을 독려하며 제3세계 빈민촌 아이들을 먹이고, 치료하고, 공부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습니다.

Mrs. Lee helps all the Dail Community's foreign missions through prayer of encouragement and donations. She along with her husband decided to adopt two children growing up in Dail Community' mission. The have adopted two high school students named Ma-Weh and Won-Sam. This childless couple sends two children's expenses every month, plus they send donations to help Dail Community's children in China. As I watch this couple's love for children, I was deeply and emotionally moved. It brings tears to my eyes.

This couple would like to show their two adopted children Dail's third world missions and hope they will grow up responsibly. With this in mind, they will be going to Tanzania in Africa this month of January.

After being involved with Dail Community, she looks at a dollar bill and says with this dollar, I can save one child. Mrs, Lee has made a piggy bank using a 5 gallon water jug. After coming home from work, she and her husband empty their pockets and purse, putting the coins and paper money into the jug. She also put a donation box in her place of business and encourages her customers to help feed, educate and give medical attention to third world children. Every year through the food fair she helps all other Dail's missions.

또한, 매년 음식바자회를 준비하여 다일의 해외 사역지를 돕고 있습니다. 제 3세계 다일의 사역지마다 일대일아동결연을 통해 또 다른 아이들을 입양하고 있으며, 네팔과 탄자니아다일공동체에는 매월 밥퍼 사역비를 보낼 뿐 아니라 모든 다일의 사역지를 섬기는 이 집사님이야말로 시카고의 숨은 천사임이 분명합니다.

이제 이 집사님은 제3세계 다일의 사역지를 섬기는 것뿐만 아니라 시카고다일공동체의 자비량 간사가 되어 다일의 사역을 홍보하고 후원자들을 발굴하는 일까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요즘은 1개 \$5하는 '밥퍼밴드' 홍보대사가 되어 "밥퍼밴드 1개 \$5이면 제3세계 빈민촌 어린이 20명을 배불리 먹을 수 있습니다~!"라고 열심히 외치고 계십니다.

**다일공동체 사역의 든든한 후원천사이신 이숙의 집사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



She is also involved in Dail' save one child campaign. She sends donations to save a child. She also donates to Nepal and Tanzania Babfor every month. She is a real Chicago's hidden angel.

Now, not only serving in Dail Community's third world countries, she is also our Chicago secretary and advertising representative. She finds donors to donate to the Dail Community. Recently, she became an advertiser for one dollar babfor wrist bands and she tells people with this 'Five dollar babfor wrist band, we can fully feed 20 third world country childre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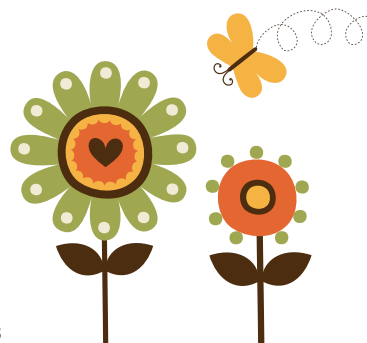
**Dail Community deeply thank Mrs. Lee for all the work she has done.**

USA Dail Community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Our child has been changed!”



필리핀다일공동체 이명현 원장 • Myunghyun Lee, director of Dail Community of Philippines

밥퍼센터에 오는 수많은 아이들을 동시에 대하다 보면 모든 아이들을 소상하게 파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 중에도 유독 우리의 시선을 끄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마들린, 필로, 미코, 삼남매가 그랬어요.

처음 이 아이들이 우리 눈에 들어온 건 그 엄마가 어린 삼남매를 데리고 와서 아이들이 밥을 먹은 후에는 소리 없이 청소를 도와주다가 소리 없이 사라지곤 하던 일이 반복되면서였어요.

마들린은 툭 하면 엄마한테 혼나고 매를 맞기도 했지요. 늘 인상을 잔뜩 찡그리고 툭 하면 우는, 아주 고집이 있는 아이였어요. 우리가 이름을 불러도 절대 대답도 안 하고 센터에 와서 밥을 먹으면서도 우리랑 눈도 안 마주쳐요. 발에 상처가 심하게 깊어서 치료받으러 와서도 저를 안 쳐다보고 고개를 옆으로 돌리는 아주 특별한 아이였어요. 속사정을 알고 보니 남편 잃은 젊은 엄마가 홀로 세 아이를 먹여 살리려니 얼마나 앞이 캄캄하고 얼마나 처절했겠어요? 자식 굶기지 않으려고 여기저기 돌아다니며 구걸을 했다는군요.



남의 빈 터 땅바닥에 거적대기 깔고 웅크리고 자면서 마들린은 그 때 상처를 많이 입었던 것 같았어요. 그래서, 우리 센터에 와서 밥을 먹으면서도 엄마도 딸도 우리의 시선을 피했던 거였지요. 마들린과 필로를 한꺼번에 우리 유치원에 입학시켰지만 마들린은 유치원에서도 적응을 잘 못 하고 때를 쓰는 등 사회성 발달이 매우 저조한 문제 행동들을 보였어요. 선생님들이 애를 많이 먹으면서 사랑으로 돌보았지요.

It is hard to know each child who comes to Babfor Center because we meet so many of them at the same time. Though, among them, there are children who especially catch our eye.

**Among them are Madelin, Pilo, and Miko who are brother and sisters.**

At first, their mother came with little three children, and began to have lunch. After having lunch, she would help clean and then suddenly disappear in without notice. That went on and on, and then we began to notice them.

Madelin used to be scolded and flogged very often. she was a very willful child who was always frowning and crying. She never answered when we called her name and did not even make eye contact. She was a very special child who did not even look at me, but turned her head away while having her foot treated for a festering wound. Then I came to know their story. It turns out that their mother had begged here and there for food. How desperate and hopeless she must have felt supporting three kids alone? Madelin appeared to hurt a lot when she slept on a straw mat in the empty space of other people’s homes. This was why her mother and Madelin avoided eye contact with us.

We enrolled both Madelin and Pilo in our kindergarten, but it did not work out very well for Madelin at first. She had a social development problem. She was whiny and incapable of adapting. Teachers took care of her with love and support.



### 지금은... 아이가 달라 졌어요!

그 나이에 맞게 정상적인 성장 발달을 보이는 아주 평범한 아이가 되었어요. 이름을 부르면 대답도 잘 하고, 생글생글 웃기도 하고 가끔은 제 볼에 뽀뽀도 해주는 등 이쁜 짓도 한답니다. 게다가 푹푹하기까지!

마들린네 사정을 작년에 페이스북에 사연을 올렸을 때 즉시 미국에 계신 한 천사가 후원자가 되어 주셨어요. 또 자원봉사 왔던 한 남학생이 필로에게 아빠 역할 해주더니 계속 아빠가 되어주기로 하고 후원천사가 되어주셨어요. 이 남학생은 자기 페이스북 프로필 사진도 필로를 안고 찍은 사진으로 했더라고요. 그만큼 사랑해서겠지요. 막내 미코에게도 자원봉사 왔던 분이 너무 이뻐하시면서 후원천사가 되기로 약속해주셨어요.

덕분에 밝고 이쁘게 자라는 마들린네 삼남매를 보면서 참으로 고마움을 많이 느낍니다. 천사가 되어주신 세 분의 후원자님들도 기쁘시죠?

다 여러분들 덕분입니다!



### Now... our child has changed!

She became a child showing the normal development of her age. She answers when I call her name, she smiles, and sometimes, she kisses me on my cheek. Plus, she is smart!

Last year, as soon as we posted Madelin's family story on facebook, one angel in America became a supporter. A male student who had played the father's role to Pilo during volunteer work also became a supporter promising that he would remain as the Pilo's father in the future. One student put a picture of himself holding Pilo as his facebook profile. I guess that's because he loves him that much. In addition, one volunteer worker promised to be a supporter of the youngest, Miko.

I feel so grateful to see these three kids growing up happily thanks to all of these supporters. Three supporters, our angels, are you happy too?

It's all thanks to you!

만원으로  
해외 빈곤아동 40명의  
한 끼 식사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만원의  
행복

영화 한편

케익 하나

액세서리 한개

만원은 누군가에게

즐거움이 되고

달콤함이 되고

기쁨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어떤 이에게는

생명을 선물하고

희망을 키워주며

살을 바꿀 수 있는

희망이 되기도 합니다.



후원안내전화 02) 2212-8004

# 더 이상 울지 않아요 I'm not cry any more

네팔다일공동체 박종원 원장 • Chong Won Park, director of Nepal Dail Community

## Nepal



## Dail Community

“선생님, 안녕하세요. 고맙습니다. 돌아와서 정말 행복해요. 공부 열심히 할게요”

미소가 멋진 라홀(12)이 선생님들께 이야기합니다.

라홀은 저 멀리 인도에서 카트만두로 이주해 온 호프스쿨의 학생입니다.

큰 미소로 늘 인사하고, 센터, 학교 청소도 열심히 도와주는 의젓한 상급반의 학생입니다.

그런 라홀이 어느 날부터인가 갑자기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듣게 된 이야기로, 부모님이 일자리를 구하러 라홀을 데리고 부뚜왈(평야지방)로 떠났

다는 것입니다. 라홀은 호프스쿨에서 공부가 하고 싶어서 가지 않겠다고 부모님께 말했지만,

부모님은 그렇게는 안된다며 라홀을 데리고 떠났습니다.

떠나던 날, 버스를 기다리며 라홀이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Class 4 담임 선생님인

Rebecca 선생님께 전화를 걸어서 자신의 이름을 출석부에서 지우지 말라고, 곧 돌아오겠다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늘 환하게 웃던 라홀이 보이지 않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Dear Miss, Dan-nye-bat! I'm so happy to be back here at Hope School.  
I'll do my best from now on!”

We will always remember when Rahul come back to Hope School.

Rahul, who came from the India region, is one of the Class 4 students of Hope School.

He has a big and bright smile and always cleans up the Dail Vision Center and classroom on his own initiative. One day, We couldn't see him anymore because he left to Butuwal (Terai, plain area in Nepal) with his family. He told his parents that he won't go and keep studying at Hope School, but they took him without any notice.

When he left Kathmandu and was waiting for the bus to go to Butuwal, we heard from his friends that he cried so much. He called Ms. Rebecca, who is a teacher in charge of class 4, and requested her to keep his name on the school' list and said “I'll be back soon”. We missed his smiling face and really felt sad for a long time.



**I'm not cry  
any more**

그렇게 4개월이 흘렀고, 어느 날, 라홀에게서 연락이 왔습니다. 일주일 뒤에 다시 카트만두로 돌아갈 것이라고요. 그렇게 라홀은 다시 호프스쿨로 돌아왔습니다. 비록 오랜 시간을 떠나있어서 수업을 이해하려면 어렵겠지만, 그 환한 미소를 다시 볼 수 있어서 호프스쿨이 한층 생기가 듭니다.

호프스쿨은 더 없이 소중한 아이들이 함께 웃고, 울고, 숨쉬는 안식처입니다. 누구 한 명도 놓칠 수 없이 전부 다 아름다운 걸작들입니다. 호프스쿨은 우리가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아이들로 인해 살아지는 공간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마음 편히 공부할 수 있도록 응원해주세요.**

Time flies so fast, but after 4 months, Rahul contacted us finally and he said he will come back to Kathmandu within one week.

Now he came back here to Hope School. He's going to have a hard time joining his class again though. We're glad that we could see his bright smiling face and we believe Hope School will become more active as well.

Hope School is a real shelter for those children who are the most special in the world and we don't want to lose any child. Hope School is not led by us, but empowered by children's action.

**Your support will be a great encouragement to our children. Thank you.**



해 외 아 동 결 연

#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세요

**“학교에 가고 싶은데  
갈 수가 없어요.”**



캄보디아 톤레삽 호숫가 빈민촌에  
잘 먹지 못하고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던  
한 안타까운 소녀가 살고 있었습니다.  
17살 마까라를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일용직 건축일을 하시는 아버지의 하루 수입  
\$3.5에 의존하며 11명의 대가족이 살았습니다.  
부족한 생활비로 언제나 7명의 언니, 오빠  
그리고 막내 남동생에게 밀려  
제대로 된 보살핌을 받지 못하던 마까라...  
그러던 중 우연히 오게 된 캄보디아 다일공동체에서  
기적적으로 이어진 아동결연을 통해  
새로운 삶의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음악 교육이 없는 캄보디아에서  
캄보디아 다일중창단을 통해 음악을 접하고  
2010년에는 한국을 방문해 방송에도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마까라의 삶에 큰 변화와 꿈이 생기게 된 것이죠.

**“다일공동체와 같은 NGO의 단원이 되어  
저처럼 어려운 환경에 있는  
친구들을 돕고 싶어요!”**

희망이 없어 늘 어둠기만 하던 마까라는  
결연을 통해 새 희망을 찾고  
NGO 단원이 되기를 꿈꾸고 있습니다.

아동결연이 아니었다면 꿈꾸지 못했을 희망..  
아동결연이 가져다준 기적!

하지만...  
아직도 수많은 세계의 빈곤아이들이  
희망없이 고통속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아동결연을 통해 이 아이들에게 꿈을 심어주세요.



## + 1:1 결연 후원자가 되시면?

<b>아동소개카드</b>	결연아동에 대한 상세한 정보와 사진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b>아동자필편지</b>	결연아동이 후원자에게 보내는 자필 편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b>아동성장보고서 성탄카드</b>	후원신청 후 연1회 아동성장보고서와 성탄카드를 연말에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b>소식지</b>	매월 발행되는 다일공동체 소식지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b>기부금영수증</b>	연말 기부금 영수증 발급이 가능합니다.

+ 1:1 아동결연은 아동이 고등학교 졸업때까지 이어집니다.  
지역의 특성상 아동의 이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후원안내전화 02) 2212-8004**

# 일체가 은혜요 감사뿐입니다

/ 폴바드르 따망·빠마야 따망

# Everything is in his Grace and I am thankful for All

/ Kul bahadur Tamang · Pamaya Tamang



안녕하세요. 저는 네팔 다일 공동체 총무 폴 바드로 따망 입니다. 생각지도 못하던 한국에의 DTS를 아내와 함께 받을 수 있게 하신 하나님께 너무 감사 드립니다. 세상적으로 보면 저는 한국에 오기에 너무 부족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저를 사랑하시고 저도 하나님을 사랑하니 새로운 나라에 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봉사, 섬김에 대한 생각은 가지고 있지만 어디서 언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저 역시도 그랬습니다. 저는 교회에서도, 교회 밖에서도 많은 사역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해야 하는지는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저 제가 생각하는 대로 저의 뜻대로 하였을 뿐, 진정으로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는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저는 저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알기 원했고, 이것을 통해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2003년부터 저는 비전을 위해 기도하였습니다. 비전을 찾기 위해 많은 훈련들도 받아 보고, 다른 단체들의 DTS도 받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 것들이 저의 비전을 찾아주지는 못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2010년 다일공동체 DTS를 받을 기회가 제게 찾아왔고, DTS를 통해 영적인 눈이 열렸습니다. 그 때 저는 제 생명 역시 주님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는 세상적으로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저의 부족함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너무나도 크신 분이었습니다. DTS 기간 동안 저에게 모든 것을 넘치도록 채워 주셨을 뿐 아니라, 저의 작은 믿음 소리 하나도 다 듣고 응답하셨습니다. 영적인 아버지와 어머니, 형제 자매들도 만나게 하셨습니다.

Greetings from Kulbahadur Tamang, I am a Manager of Nepal Dail Community. I am so thankful for his grace that my wife and I had the opportunity of having DTS (Discipleship Training School) in Korea, something I never would have expected before. From a worldly perspective, I lack too much to be able to come to Korea. Yet, my heavenly father gave me the chance of experiencing a new country, Korea. This happened because I love him and also because he loves me.

Many people want to serve, but they do not know how or where to start. I was in this situation. I had been doing a lot of missionary works inside and outside of church. However, I did not know how to do this ministry well. I served by my own will and did not really consider God's will. I truly wanted to know what God's vision was for my life and through that vision, be a worker for Christ. Starting in 2003, I began to pray for my vision. To seek this vision, I received a lot of training as well as DTS from different organizations. However, all these things did not lead me to a clear vision for my life.

During that time, I had an opportunity to be trained at the 2010 Dail DTS program, which became an eye opening experience for my spirit. That was when I came to know that my life is belong to my heavenly father. To this world I was such an inadequate person, but God accepted me for who I was. During the DTS program, the Lord not only overfilled my cup, but he answered even the smallest prayers. He lead me to my spiritual parents and also other brothers and sisters in the LORD.

Everything is in his Grace

and I am thankful for All

다시 네팔로 돌아왔을 때, 저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을 가지고 더 열심히 일할 수 있었습니다. 다일공동체의 사역뿐 아니라 교회 일도, 사람들과의 관계도 믿음, 소망, 사랑 안에서 행하게 하셨습니다. 네팔에 있는 동안 하나님께서는 저를 단련시키셨고, 힘든 일들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을 주셨습니다.

Upon returning to Nepal, I was able to work more fervently towards the vision I received. I served my ministry of Nepal Dail Community as well as my church work. My relationships with other people grew through Love, Faith and Hope. My LORD trained me while in Nepal and gave me strength to overcome any missionary tasks.



2013년, 저는 다시 다일공동체 DTS를 받을 기회를 얻게 되었습니다. 2013년도 DTS는 제게, 제가 하는 모든 일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음을 알게 해주었습니다. 제가 하는 작은 일들 하나 하나가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이웃을 행복하게,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 수 있음을 저희는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DTS를 통해, 저는 비록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저를 통해 일하시는 주님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려면 내가 먼저 죽어야 한다는 것 또한 깨달았습니다. 제가 죽지 않으면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DTS 기간 동안 저는 많은 가족들을 얻게 되었습니다. 네팔 형제 자매들뿐 아니라 다일공동체 가족들이 함께 예배 드리고 춤추고 찬양하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한 가족이고 진정한 친구임을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외국에 있어도 외국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할 정도였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진정한 친구를 찾을 수 없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써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진정한 친구가 되어주어야 함을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Again in 2013, I had a valuable chance to experience Dail DTS. The 2013 DTS showed me that all what I do will glorify him. We should remember that even small deeds bring him joy, make others happy, and make the world more beautiful. Through the DTS, I was able to see that, though I am lacking and weak, the Lord still works through me. I also realized that in order to lead others to the kingdom of God, I must first give myself up to him. If I don't give myself up to God, I will never produce good fruit. I gained a family through my time at Dail DTS. Not only Nepal brothers and sisters, but the Dail community joined in worship, dancing, and praise. We are one family in Christ and truly close friends, this was what I learned. Though I was in a foreign country, it did not feel foreign at all. Although you cannot find true friends in this world, I was reminded that, as children of God, we are called to become true friends of everyone.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무엇이나 준비되고 무엇이나 받아들이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살기를 소망하며 일체가 은혜요 감사뿐입니다. 아하!

Through his grace I hope to be a true follower of Jesus, prepared to receive anything. Everything is in his grace and I am thankful for all. Aha!

Dail DTS

## 인디언의 기도

런던 버킹엄 궁 조지 왕의 서재에서 발견된 글  
작자 미상

제게 부여된 일을 잘 감당하게 해 주소서.  
늘 제 스스로를 잘 돌아보게 하시고,  
침묵해야 할 때 침묵할 수 있도록 하소서.

제가 고통을 받아야만 한다면  
아무런 불평도 하지 않고  
남을 괴롭히지도 않고  
홀로 멀리 떠나 말없이 고통을 견디게 하소서.

제가 이길 수 있다면 저를 도와 이기게 해 주시고  
만일 제가 이길 수 없다면  
적어도 멋지게 패배하는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오늘 하루도 저와 함께하소서.



## Pray of Indian



# 밥퍼는 000이다

**예수님과 함께하는 한 끼 식사다** 네오플렉스 김정현  
자기 스스로 일용할 양식을 해결할 수 없는 광야 같은 인생에 하늘에서 내리는 만나입니다. 여기서 나누어지는 한 끼 식사는 세상에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기를 원합니다.

**밥퍼는 기적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 장경덕  
모두가 각자 일사분란하게 움직이는 모습이 정말 신기했습니다. 미리 연습한 것도 아니고 배운 것도 아닌데 실수 없이 모두 같은 생각으로 밥을 만들어낸 건 정말 기적입니다.

**밥퍼는 유재석이다** 동아쏘시오홀딩스 김세훈  
이곳에서는 사람들이 작은 일에도 감사할 줄 알고 서로를 배려해 주며 눈이 마주 쳤을 때는 서로의 얼굴에 미소가 생깁니다. 바라만 봐도 좋은 유재석처럼 밥퍼는 모든 이에게 행복한 미소를 주는 것 같습니다.

**밥퍼는 배가 되는 즐거움이다** 어드벤처 최수혁  
이른 아침 회사 마케팅 행사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친절한 목사님과 주방장님의 설명에 맞춰 4시간에 걸친 즐거운 노동은 자발적이면서도 즐겁게 다가왔습니다. 연인들, 학교, 교회에 추천해 봅니다. 배가 되는 즐거움이 이곳에 항상 함께하기를

**밥퍼는 새 시작이다. 나의 삶의 다른 시작!** 어드벤처 나세근  
가슴 속에 품은 어두움이 사라지고 나의 또 다른 삶의 시작! 다시 불을 붙이자. 우리 가족의 모습이 내 마음 속에 다시 그려진다. 다시 파이팅하자! 내 조건의 파이팅!

**밥퍼는 나눔이다** 미소금융중앙재단 노희영  
연말에 좋은 나눔 봉사활동을 하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생각보다 쉬운 것이 아니어서 놀랐고 매일 하신다는 이야기에 더욱 놀랐습니다. 약간의 호기심으로 오늘 오게 되었는데 마음 속 깊이 감사한 마음을 안고 갈 것 같습니다.

**밥퍼는 과실이다** 송인중학교 박예찬  
만인의 노력과 땀으로 이루어진 달콤하고 아름다운 과실이다. 또한 흔한 과실처럼 배고픈 이를 구해주고 목마른 이를 도와준다.

**밥퍼는 뒤를 보는 거울이다** 외환은행 송은정  
나는 앞만 고 살았다. 누군가 나를 불러줄 때 만 뒤를 돌아 본다. 그런데 오늘은 내 스스로 뒤를 돌아봤다. 너무 바쁘고 정신없게 살았다. 늘 이 자리에 거울을 보면서 내 삶의 뒷 모습을 보게 되었다.

**밥퍼는 살기 힘들다** 관악고 손채영  
다리가 아파요. 허리도, 아프고 결막염에도 불구하고 생 대파를 손질했다. 척추측만증, 허리디스크임에도 불구하고 김치를 퍼서 날랐다. 근데!!! 밥이 맛이 있었다. 배가 불렀다. 행복했다. 또 해야지...

**밥퍼는 마이크다** 영현대 글로벌 기자단 안진호  
누군가의 작은 목소리가 마이크를 통해 더 멀리,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해지듯이 한사람의 작은 봉사가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행복으로 다가가기 때문이다.

**밥퍼는 난로다** 영현대기자단 김희은  
추운 겨울 따뜻하게 몸을 녹여주는 난로처럼 밥을 전하는 따스한 손길로 사람들에게 온정을 전하고 나누어 주는 밥퍼는 길거리에서 혹은 외로운 집 방 안에서 홀로 쓸쓸한 차가운 마음을 녹여주는 한겨울 따스한 '난로'다.

**밥퍼는 생명이다** 에듀코 임지현  
밥이 없으면 사람이 죽을 수 있듯이, 많은 사람들의 봉사도 없으면 밥퍼는 죽은 것이나 다름 없을 것이다. 오늘 봉사를 하면서 올 한해를 너무나 의미 있고 보람되게 끝을 맺은 것 같아 너무 감사하고 기쁘다.

**밥퍼는 감동이다** 관악고 유정운  
내가 일하는 만큼 다른 사람이 먹을 수 있고 나는 평소엔 편하게 생활하는데 정말 힘들었지만 뿌듯하고 보람 있었다. 오늘 먹은 밥이 지금까지 먹은 밥 중에 제일 맛있었던 것 같다.

**밥퍼는 내 삶의 길잡이다** 외교부 정태영  
국민을 섬기는 것을 소명으로 일생을 살기 위해 공무원의 길을 택했습니다. 오늘 하루가 앞으로의 제 삶에 작은 초석이 되어 줄 것을 확신하고 돌아갑니다.

# 나는 행복한 자원봉사자

## 남성교회



넉넉한 웃음과 여유 있는 모습. 바쁘게 돌아가는 밥퍼의 분주함속에서도 모두가 여유롭고 웃음이 가득합니다. 차분하고 꼼꼼하게 봉사 하시는 최고의 남성교회의 봉사단입니다.

## 신반포교회



무엇이 그리 즐거운지 봉사 내내 웃음이 가득한 신반포교회의 봉사단입니다. 활기찬 모습에 밥퍼의 주방도 덩달아 맑고 밝아집니다. 이번 뿐 아니라 다음번에도 활기찬 봉사를 부탁드립니다^^!

## 케논코리아



나눔을 실천하는 케논코리아의 봉사자 여러분들입니다. 한분 한분 마치 스텝처럼 움직여 주시는 모습에 감격했습니다. 마음의 자세와 몸으로 움직이는 행동의 자세가 균형 잡힌 케논코리아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 미래에셋



밥퍼의 단골손님이며 늘 소리 없이 강한 미래에셋 가족들입니다. 꾸준한 봉사 후원으로 섬기는 모습이 아름답습니다! 나눔의 자리에 사랑으로 함께 해주신 미래에셋의 섬김에 감사드립니다!

## 어드벤처



파란색 점퍼를 똑 같이 맞추어 입고 질서 있고 규모 있게 봉사해 주신 어드벤처 임직원 분들입니다. 협동하는 봉사의 자세부터 섬김의 각이 있더군요 어드벤처와 함께 해서 더 행복한 하루였습니다.

## 허벌라이프



존재감이 확실한 허벌라이프의 봉사단입니다. 성탄절날 모여 거리성탄예배도 준비해 주시고 매해마다 후원해 주시는 봉사팀 이지요 한번 보면 절대로 잊지 못하는 허벌라이프봉사단 너무나 감사합니다!

## 미소금융중앙재단



따뜻한 미소의 미소금융재단 이 겨울 밥퍼의 노숙인과 어르신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먼저 물어 봐 주시고 난로가 필요하다고 하니 야외에서 필요한 난방기를 4대 후원해 주셨습니다. 올겨울 밥퍼의 사랑의 온도가 더욱 상승하였습니다.

## 인천성모병원간호사



기쁘게 섬기는 모습이 바로 이것! 이구나라는 것을 보여주는 인천성모병원의 간호사분들입니다. 오전 중에 흐리고 눈발이 날리더니 맑게 봉사하신 분들 때문인지 오후에는 화창하게 되었네요.

## 한국벤처투자



한끼 식사로 사랑을 전합니다. 어르신들에게 따스한 밥을 나누는 참 된 의미를 알고 있는 한국벤처투자입니다. 밥퍼봉사가 4번째이신 사장님은 이미 봉사의 달인이십니다. 함께한 시간 너무나도 행복합니다!

중국다일공동체

캄보디아다일공동체



## 중국다일어린이집의 발전소 견학

겨울 방학을 맞아 중국다일공동체 온 가족이 훈춘 시의 전기와 난방을 총 공급하는 발전소에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특히 발전소는 개인적인 방문이 매우 어려운곳인데 시탄위와 공안국의 초대와 협조로 내부 조정실까지 자세히 안내해 주셔서 아이들이 신기하고 다양한 체험을 하는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뿐만아니라 점심식사까지 마련해주셔서 모처럼 온 가족이 즐거운 소풍을 했습니다.

그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늘 보내주시는 여러 이웃들의 그 사랑 먹고 아이들이 무럭무럭 자랍니다.

# China/ Cambodia

## 캄보디아 땅에서 울리는 한국의 소리!

캄보디아 빈민촌에서 한국의 소리가 울렸습니다. 한국교통대학교 학생들이 멋지게 한복을 차려 입고 사물놀이와 부채춤을 선보였습니다. 아이들은 박수치는 것도 잊은 채 집중하며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더운 날씨 속에 겹겹이 한복을 차려입고 공연하는 학생들의 땀방울이 참 귀하고 귀한 날이었습니다. 캄보디아 땅에 한국의 아름다운 소리와 춤이 너무나 멋지게 울려 퍼졌습니다. 학생들의 귀한 봉사 와 나눔을 통해 눈과 귀가 즐겁고, 마음이 따뜻해지는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봉사자분들과 함께 캄보디아 다일공동체를 세워가고 있음에, 아이들에게 더 많은 것들을 나누고 누릴 수 있음에, 너무나 감사한 하루입니다.

탄자니아다일공동체

베트남다일공동체



## 보상 없이, 댓가 없이! 자원봉사자가 최고야!

일일이 사진을 다 올릴 수 없을 만큼 많은 자원봉사자분들이 맑은 마음, 밝은 얼굴, 바른 믿음, 바른 삶으로 쿤두치 밥퍼센터에서 참사랑의 나눔과 섬김을 실천해 주셨습니다.

일체가 은혜요 감사 뿐입니다. 여러분이 제 곁에 계셔서 제가 행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탄자니아 다일공동체 입니다!

2014년에도 더욱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 Tanzania/ Vietnam

## 포스코 ICT 베트남 봉사자들

포스코 ICT 베트남에서 직원들이 봉사해주었습니다. 오늘 봉사에 참석한 직원들은 호치민 포스코 ICT베트남 소속이지만 인도로 파견되어 인도 현장에서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입니다.

업무차 호치민 사무실에서 잠시 근무하는 중에 모든 일정을 뒤로하고 가난하고 험벗은 이웃들을 섬기기 위하여 밥퍼 봉사에 참여하게 된 것입니다. 쌀과 바나나도 준비해 오셔서 식사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바나나를, 도움이 더 필요한 분에게는 쌀을 전해 드렸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맡겨진 업무는 물론이고 이웃을 섬기는 일에도 앞장서는 포스코 ICT 베트남이 있어서 살 맛 나는 세상입니다.^^



## 다일작은천국



### 이 사람들을 살려주세요!

다일천사병원내부시설에 있는 다일작은천국은 영양실터로 인간으로써 생의 마감을 기다리는 웰다잉하우스의 영양실터입니다. 이분들이 인간으로써 인간답게 마지막 그 죽음을 맞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기관입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세계 최대빈민국의 어린이들을 돕는 일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다일공동체는 한국의 토종 NGO 1호로 6.25사변 이후 후원을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외국의 빈민국의 어린이들을 도와주는 나라로 그 선봉에 다일공동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나눔과 섬김을 통해 그들에게 희망을 심어주고 있습니다. 병든 자와 어린이들에게 의료서비스와 음식을 제공합니다. 여러분의 관심만이 지금은 이들을 살릴 수가 있습니다.

## 네팔다일공동체



1. 네팔에 온지도 벌써 9개월이 다 되어 이곳에도 겨울이 찾아왔습니다. 네팔의 겨울은 한국과는 또 다릅니다. 한낮에는 따뜻하고 기온이 영하로 떨어지는 일이 거의 없지만 우리나라의 보일러와 같은 난방시설이 없고, 건물도 단열처리를 하지 않아 실외보다 실내가 더 춥습니다. 그래서 네팔에서는 겨울방학(winter vacation)을 '치소비다' (추워서 쉬는 날)라고 부르곤 합니다.

유치원도 실내가 추워 아이들이 놀고 공부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어느 후원자님의 후원으로 실내에 알파벳매트를 깔아 보온성을 높이고 바닥이 딱딱하지 않아 뛰노는 아이들에게 조금 더 안전한 환경을 마련해 줄 수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무척이나 좋아했습니다. 아침에 유치원에 등원하자마자 방방 뛰며 예쁘다고 고마워하며 뽀뽀를 해주었습니다. 그 날 뿐만 아니라 아이들의 애정공세는 계속 되었습니다. 며칠 후 유치원에서 한 달에 한 번 있는 생일 파티날이 되었습니다. 생일자인 아이가 공부하다가 다가와



매트를 깔아주어 고맙다고 예쁘다고 연신 말해주었고, 심지어는 밥을 먹다가도 사랑한다고 뽀뽀세례를 퍼부어주었습니다.

이 어린 영혼들의 감사하는 마음도 이렇게 오랜 시간 지속되는데 나는 불평불만만 하고 살지는 않았나하고 반성하며, 아이들에게 이렇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것에 비해 내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처음보다 식은 건 아닌지 돌아보는 며칠이었습니다. 애들아! 남은 시간 더 사랑하고 감사하자!

2. 네팔 다일공동체의 직업 기술 학교의 일환인 미싱 교실이 시작된 지 어느새 2주가 지났습니다. 작년 미싱 교실 수업에서는 수동 미싱 기계를 사용하였지만, 이번 년도부터는 전통 미싱 기계를 이용한 수업을 할 수 있어 더 나은 환경이 되었습니다. 처음에, 미싱 교실에 참여 할 여성들을 선발할 때 약간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수업에 참여하고 싶은 여성들

## Little Heaven/ Nepal

대부분이 교육을 받지 못한 여성들이기 때문에 수업을 따라올 수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우리는 미싱 기술을 정말로 배우고 싶어 하는 여성들에게 기회를 주기 위해 집집마다 방문하여 참여의사를 물어보았습니다. 어떤 여성들은 본인들이 수업을 이해할 만한 능력이 되지 않는다고 이야기했지만, 우리는 그들이 수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격려했습니다.

그 결과, 총 20명의 여성이 미싱 교실에 참여하게 되었고, 그 중 14명의 여성은 글을 읽고 쓰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네팔어와 계산법을 함께 가르치면서 미싱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미싱 교실의 궁극적인 목표는 가난한 여성을 가르쳐주고, 그들에게 직업을 찾아주는 것으로 달성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진심으로 격려하고 그들 스스로 자신감을 가지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미싱교실을 위해 많은 기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나눔을 실천해 주신 신규 회원들에게 감사, 감사, 감사드립니다!

## 신규후원자

2014. 1.1~1.31

(사)한국청소년육성연맹, (주)대한주정판매, (주)비탈티코퍼레이션, (주)에스에이치로지스틱스앤테크놀로지, 151기벤티들, sg워너비팬클럽, 강경자, 강계영, 강민수, 강석원, 강선옥, 강수연, 강승인, 강윤숙, 강인배, 강재욱, 강재일, 강현준, 강형일, 강희재, 계예진, 고영민, 고윤순, 고현태, 권영우, 권종석, 김경현, 김경희, 김길수, 김대근, 김덕남, 김덕임, 김도형, 김동하, 김동호, 김명자, 김문영, 김미경, 김미라, 김미란, 김범학, 김병욱, 김선정, 김선희, 김성배, 김성선, 김성아, 김성지, 김수영, 김수정, 김숙희, 김순예, 김순희, 김승미, 김승호, 김연희, 김영기, 안윤희, 김영석, 김영우, 김영자, 김영초, 김예지, 김용수, 김윤희, 김은경, 김은옥, 김익수, 김인순, 김일규, 김재량, 김정현, 김정희, 김주은, 김지은, 김지은, 김지훈, 김창신, 김하울(김성범), 김하진(김성범), 김한철, 김행란, 김현경, 김현민, 김현정, 김혜옥, 김혜정, 김효진, 김희영, 나경래, 나원주, 나윤미, 남두현, 남월미, 남혜정, 노미애, 노재성, 노정미, 노현숙, 도경선(김하출), 도예미, 명지향, 모두이, 무주장로교회, 문무호, 민병우, 박계홍, 박래송, 박선경, 박성박, 세진, 박소순, 박수경, 박수련, 박순심, 박언경, 박언정, 박연수, 박영애, 박영희, 박원배, 박재수, 박정규, 박정옥, 박종삼회장님, 박종원, 박중혁, 박지숙(박분숙), 박태양, 박호진, 방명분, 배명수, 배윤교, 배장순, 배준옥, 배행연, 백민철, 백옥자, 백종례, 백종선, 백지은, 변규리, 변삼진, 변지은, 변진숙, 복나옥, 사단법인한국커피연합회, 사랑의복지관, 서주원, 석수진, 석유진, 성진희, 소정환, 손보아, 손언정, 손용석, 손종완, 손형민, 송남영, 송승남, 송창국, 송혜은부부(행도), 신동훈, 신미리, 신성순, 신호수, 안미경, 안숙희, 안영자, 안은영, 안재현, 안해자, 안혜원, 양승옥, 양재월, 양정순, 여운상, 예심교회아동부오선희, 오에스아이스프트코리아주식회사, 오유진, 오재규, 오정순, 오준석, 오창표/밥퍼밴드오창희, 오희남(장혜선), 이상용, 유미경, 유민상, 유애자, 유예린(강미경), 유정희, 유창근, 유채원(강미경), 윤부영, 윤성모, 윤영독, 윤완섭, 윤진숙, 윤혁수, 이경진, 이경희, 이계숙, 이광순, 이광철, 이근배, 이금희, 이영희, 이미경, 이미영, 이발희, 이병욱, 이병주문신, 이상권, 이상욱, 이상원이상은이사령이성숙이세라이소자이수영이수인이수옥이수진이승민이승우이신유이영미공예이영배이영선이영순이은미이은희, 이재순, 이점순, 이정재, 송재, 이정화, 이정희, 이종설, 이주영, 이지혜, 이지희, 이진경, 이진순, 이태웅, 이태웅, 이하림, 이하자, 이현정, 이효정, 인영란, 인영숙, 인주현, 임미경임미영, 임미택, 임성남, 임순임, 임옥경, 임종남, 임현오, 임현정, 장복순, 장정의, 장춘열, 장현지, 장희정, 재현중고등학교, 전정례, 정강, 정경옥, 정길자, 정도영, 정상림, 정상훈, 정순애후원, 정인숙정재표, 정해광, 정현만, 정현근, 조국현, 조다연, 조민정, 조복남, 조승순, 조순영, 조순제, 조승희, 조은혜, 조정희, 조차순, 조혁래, 조현경, 차정운, 채봉덕, 천사병원돕기후원금, 천상김진호, 최경진, 최고은, 최리라, 최명자, 최미선, 최소영, 최순련, 최순영, 최용기, 최유나, 최은미, 최은심, 최은정, 최은환아름다운사람의, 최일현, 최창호최충만최지연최향미(이성훈)최형준, 캄보디아사랑, 탁민주, 편성희, 편이자, 하정애, 하해순, 한경수, 한문자주장교, 한미란, 한상술, 한혜복, 홍성미, 홍의숙

## 네팔 신규후원자

I love Nepal 단기팀, Jasmin Reitzig, Kul Bahadur Tamang, 김경미, 문보상, 김왕희, 류명선, 선한주, 송누가, 송연수, 수산교회, 순천대학교, 신구대학, 오정신, 온세계교회, 윤희섭, 이덕영, 전주덕일교회, 전주새생활교회, 정주호, 최영선, 카트만두 한인교회 아동부, 한남대학교 고투빌, 홍정표

## 중국 신규후원자 및 물품후원자 명단

고해경, 권윤경, 김성재(Obey & Praise), 김철호, 번사장님, 사라선생님, 훈춘시 4.5.6중학교 학생들 애심떡집, 양자선교회(대표 허에스더), 영광제빵, 이사장님, 이선하, 이숙의(미국 시카고), 전영복, 훈춘시 교육국, 훈춘시탄위

## 캄보디아 신규후원자

CTT교원, HNT 한승백팀, 강대진, 강원도양구, 건국대, 경남재가노인복지협회정선남회장외회원일동, 경북포항 창진비계공사 김창식, 고려사이버대학교사회복지학과10학번, 고세인, 이파리(비전센터), 교보생명 산호지점 이선영지점장외, 교통대학교, 구미 남교회 김태수, 군포생수교회, 권용수, 근로자문화예술제수상자해외문화체험, 김도한, 김득보, 홍지애, 성업, 신엽가족, 김민성, 김민영, 김보성, 권민중, 김상용, 변춘수, 정욱, 연수, 김상진, 오승재, 김성재집사(W750,000), 김승원가족, 김예술김정애, 김태운, 김시윤, 류창현, 류영현 각\$100(정민규-소식지에 넣어야함), 김형실, 김혜경, 변용수, 까도(11월분), 남궁찬, 공간(소식지에따로락기영포함해야함), 다일비전트립 후원금, 대구 덕원고등학교, 대구광역시 동구의회W300,000(11/13일), 대구달서구청공무원자원봉사자, 대박(100)카도(300), 대박(10월), 대박(11, 12월분), 대박(9월)정기후원금, 대야건설, 대한적십자사경남지사협의회, 돈해봉 2기, 드래곤 이세인, 드래곤투어, 립톤 출판 사장일동, 목동교회 디도2속, 무명, 문화소사이더티 밥퍼 후원금, 문화소사이더티 빵퍼 후원금, 문화소사이더티 의료지원비(안과지원), 문화소사이더티 후원금, 밀양남부교회, 박미나, 박성근가족, 박시호(스라이빗 영어

-현장에서 후원금을 전달해 주신 분들입니다.

학원비 11~4월6개월분), 박준형 박철웅, 노미라, 찬미, 성아, 진영, 보은군자원봉사센터 소장 김순자, 부산신광교회 김익식 장로, 분당드림교회, 비전센터 후원금(뽕퍼후원금), 사랑의교회 나들섬성교회, 삼각교회 이순주집사, 삼성전자, 서구 청소년 문화의 집, 서산자원봉사센터, 서울 영훈고등학교 캄보디아 문화체험 활동단, 서울 중동초 역사탐방단, 성남시내버스, 세종대, 센터 모금함, 센터 모금함, 센터 모금함, 손현규, 순천대학교 후원금, 아이뮤지엄, 연두의여행이야기, 염수경, 수연, 오중석, 최기욱, 박은주, 전혜경, 옥천군자원봉사센터, 울산 천곡중학교, 윤효식, 윤지예, 은평구의회, 은평구의회 남기정의원, 이영주(12월분-르은), 이영주집사님, 김시현집사님(1월분)르은, 김리, 이영주집사님팀, 이형진, 이효승, 인제대학교, 임피제일교회, 전영기, 이금영, 전예지, 전민지(W100,000), 전주 최흥진, 조선경, 예술, 범준, 정지미, 신은영, 김대근, 정태옥, 정혁진, 을진, ㈜대영산업 임직원일동, 주선애교수님(비전센터), 창원대학교 후원금, 천호제일감리교회 아셀선교팀, 최재성님외8명, 춘천 해오름 독서논술, 총효단, 카도, 카도 9, 10월 정기후원, 코웨이그린메이커, 클럽나우 유병희, 태안군통합방위협의회(W870,000, \$130)(쌀1ton지원), 포스코직원, 포천군내교회 김종설장로, 프농펜-사랑과섬김모임, 한경대학, 한국교통대학교, 한국스카우트강원연맹, 한국양평장로교회 김유이(두리하나), 한마루교회 윤영호목사, 한승민가족, 한영외고팀, 허벌라이프 박지혜, 허에스더목사님, 해천대학교 사회복지과, 호주 멜번한인교회 김수겸, 박영신, 호주 멜번한인교회 김수열, 박선호, 호주 멜번한인교회 신홍주, 신경라, 호주 멜번한인교회 윤태준, 한희숙, 호주멜번한인교회 황언영

## 필리핀다일공동체

현지후원금 필리핀한국부인회 13,000페소(300불), 이명현 (100불)

## 작은천국 후원금품

후원금 방중근, 수원살롱교회, 양평마트, 우리은행청량리중앙지점, 은혜축산, 조이마트

## 후원금품

동대문중학교	쌀20kg 2포, 굴3box	롯데백화점(청량리점)	탁구대 및 양말
CJ	햇반5,000ea	박명희	천사병원로비 의자 및 테이블셋트
고려의료재단	멸지2box	박문정	화장지의 생필품
김미자	호박죽	서울노숙인시설협회	우유200ml 500ea, 점버등60여벌
대한항공은빛날개	겨울용내의	월계고등학교	겨울용내의



개신교 최초 무료병원인 다일천사병원을 건립할 수 있도록 천사가 되어 주신 분들을 찾습니다.

다일은 여러분의 땀과 정성이 담긴 귀한 후원금으로 소외된 이웃에게 희망을 주는 사역에 앞장서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다일복지재단 후원안내

# ARS 060-708-1588

### 다일복지재단 후원 방법 안내

#### 1. CMS(자동이체)

후원신청서를 작성하여 우편으로 보내 주시면 됩니다.  
다일복지재단(02-2212-8004)으로 전화주시면 CMS신청이 가능합니다.

#### 2. www.dail.org에 접속하시면

다양한 후원에 대하여 알 수 있고 손쉽게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신용카드 후원도 홈페이지에서 가능합니다.

#### 3. 착한소비 행복한 나눔

##### 사랑의 보험

매년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자동차보험을 기부플랫폼에 견적예약 하면 보험만기 1개월 전에 8개 보험사 비교 견적을 제공하여 가장 좋은 가입조건으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해드립니다. 동시에 수익금의 일부가 다일공동체에 기부됩니다.

모든 후원금은 연말정산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단체 참여

#### 후원 문의

TEL 02-2212-8004

FAX 02-2212-8032

www.dail.org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시립대로 57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미주지역 후원계좌

은행이름 : First Intercontinental Bank

은행번호 : 061119794

계좌번호 : 1510014622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은행이름 : Bank of America

계좌번호 : 334001270347

예금주 : Dail Community of USA Inc.

(한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BOFAUS3N

(미국에서 송금할때) 은행 wire code : 026009593

국내후원계좌 국민 467701-01-053115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미주다일공동체 후원 문의 Tel 1-770-813-0899  
Fax 1-770-813-0133

DAIL Community of USA

P.O BOX 337 Suwanee, GA 30024-0337

### 국내 및 해외 분원 연락처와 후원계좌

#### 밥퍼나눔운동본부

문의 전화 02-2214-0365

E-mail babfor@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37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설곡산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031-585-2004

E-mail abeho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901-04-064419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다일천사병원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Sunyoung@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01-0975-87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다일작은천국

문의 전화 02-2213-8004

E-mail bjgjesus@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2450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다일평화의 마을

문의 전화 031-568-5004

E-mail ahtp7749@dail.org

후원계좌 국민 010-01-0619-487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중국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6-183-4339-7009

E-mail bom@dail.org

070-7792-5451

후원계좌 기업 017-033086-01-02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베트남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4-12-6317-7912

070-8220-6160

E-mail lplhome@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9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캄보디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855-78-70-8080

070-8220-3940

E-mail mookanri@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65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필리핀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63-927-560-7346

070-8220-3278

E-mail emhok@dail.org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42581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네팔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977-98494-58330

070-8201-5833

E-mail babperdail@hanmail.net

후원계좌 국민 467701-01-157448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탄자니아다일공동체

문의 전화 255-786-740-003

070-4099-8686

E-mail dail8004@gmail.com / hslee0304@hotmail.com

후원계좌 국민 467701-01-233964 예금주 사회복지법인 다일복지재단

# 다일영성수련



## 2014년 1분기

### 1단계

153기 2월 24일(월) ~ 2월 28일(금)

154기 3월 24일(월) ~ 3월 28일(금)

155기 4월 21일(월) ~ 4월 25일(금)

대표 | 최일도 목사

서울다일교회 담임  
다일공동체 대표  
다일복지재단 이사장  
한동대학교 겸임 교수



“내 인생에서 못해본 여행이 딱 두가지 있다. 신혼여행과 우주여행  
신혼여행이 얼마나 멋질지는 모르지만 이번에 다일공동체에서 경험한  
영적우주여행, 1단계 아름다운 세상찾기라는 영성수련은 여태까지  
내가 한 여행중에서 가장 멋지고 향훈한 여행이었다.”

-한비야(전 월드컵선수 구로팀장)



“4박 5일의 시간이 저게 굉장히 큰 변화를 가져다 줬어요. 침묵하면서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게 됐어요. 창조의 질서가 보여  
서 참 신기하고 놀라웠죠. 사물을 보는 힘, 잔치를 아는 힘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온몸으로 느낀 것 같아요. 그 잔치가 보이니까 제 자신과 예수님이 보  
였던 것 같아요.”

류승완(영화감독)

설곡산다일공동체 T: 031)585-2004  
www.dail.org H: 010)7756-8004

영성수련(대관 및 개인피정) 신청은 수련 시작 일주일 전 선착순 마감하며,  
수련비 입금(농협 355-0022-4654-93 예금주:다일공동체)으로 등록 완료됩니다.  
영성수련은 한 달 전에 입금하시면 5만원의 할인 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밥짓는 시인,  
최일도 목사입니다!

날마다  
부치는  
행복편지와 함께  
벗님들과 우정과 사랑과 희망을  
진솔하게 나누고 싶습니다.

우리 모두의 행복을 위하여

·  
·  
·

시인목사  
서울다일교회 담임  
최일도 올림

**Facebook**  
페이지에서 기다립니다!!



최일도 목사의 행복편지 페이스북 <http://www.facebook.com/choiildoletter>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찍으면  
더 많은精彩内容 다일공동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일공동체 홈페이지  
[dail.org](http://dail.org)

서울다일교회 홈페이지  
[s-dail.org](http://s-dail.org)

다일공동체 페이스북  
[facebook.com/dailcommunity](https://facebook.com/dailcommunity)

다일공동체 블로그  
[dail1004.tistory.com](http://dail1004.tistory.com)



다일공동체의 홈페이지, 페이스북, 블로그를 통해 다일공동체의 새소식을 한발 빠르게 접하실 수 있고  
서울다일교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최일도 목사님의 매 주일 설교 말씀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